조계종 청사 업무동 12월에 재입주

조계종 TFT, 10월 15일 기자간담회
복구 상황 공유…예산 140여 억원
국제회의장은 내년 2월 완료 계획
고압세척 등으로 분진 청소에 최선
시설관리 · 화재대응 메뉴얼 점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올해 6월 화재 발생 이후 복구 공사 한창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올해 6월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12월 업무동 재입주를 목표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계종은 피해 시설의 원상복구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인테리어 개선 작업을 통해 한국불교 위상에 걸맞은 공간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화재복구 TFT(단장 성웅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는 10월 15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TFT에 따르면 화재는 6월 10일 오전 10시 22분경 기념관 국제회의장 입구 복도 천장에서 발생했다. 이후 소방·경찰 합동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원인미상'으로 결론났다.

이 화재로 국제회의장 복도 천장이 전소됐고, 회의장 내부와 업무동이 화재분진과 소방수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문화유산 피해는 없었다.

화재 직후 조계종은 조계사 담소를 비롯해 인근 9개소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해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했으며, TFT를 구성해 즉각적인 복구에 착수했다. TFT에는 단장 성웅 스님과 재무부장 여학 스님, 박주현 재무차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6~7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마쳤고, 7월에는 국제회의장 구조안전진단과 기초 청소를 진행했다. 8월에는 국제회의장 외벽 등 피해시설 철거를 시작해 9월 16일 마무리했고, 설계 완료 후 시공사를 선정해 9월 26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업무동은 12월 재입주를 목표로 국제회의장은 구청 해체심의 절차에 따라 내년 2월 복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역시 12월 중 재개관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화재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복구 예산은 총 140억 3000여 만원으로 편성됐다. 화재보험금(약 90억원), 후원금, 종단 예산 등을 통해 충당한다. 예산에는 임시사무실 임차료, 각종 용역비, 집기·장비 교체비, 시공비 등이 포함됐다.

성웅 스님은 "현재 각 부서가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어 불편함이 크다. 건물 골조는 유지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전면 시행해 12월 초에는 업무동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제회의장은 중앙종회가 열리는 주요 공간인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테리어 공사는 2004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1층과 4층 로비를 새롭게 단장해 한국불교 대표시설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분진 등 유해물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설비와 사무집기를 교체하고, 고압세척과 특수약품 처리를 포함한 단계별 청소를 거쳐 입주한다. 또 서버실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이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조계종은 화재 재발 예방을 위해 종단 소유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와 화재대응 매뉴얼을 일제 점검해 미비사항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성웅 스님은 "이전보다 더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로 개선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종단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소방 안전 취약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재발을 막겠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11월 정기회 봉은사서 개원

10월 15일, 제14차 연석회의서
직능대표선출위 · 선거법 등 논의

오는 11월 5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236회 정기회가 이번에도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10월 15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기회 장소와 주요 안건 등을 논의했다.

정기회는 11월 5일 오전 10시 봉은문화회관 2층 에메랄드홀에서 개회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휴회하고 6일에는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실시한다. 7일 속개해 남은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주경 스님은 "애초 봉은문화회관 공사 일정으로 장소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기회 진행을 위해 공사 일정을 조정하기로 해 이곳에서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우 스님은 "현재 봉은문화회관이 사용되지 않아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청소와 공기 정화 등을 철저히 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선거법 제77조 '직능대표선출위원회' 구성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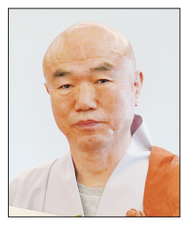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총무원 삼원 체제 당시 총무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됐다. 이후 총무원 일원 체제 전환으로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직제가 폐지되면서 7인 체제로 축소됐다. 이에 종회의원 스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다시 9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종책모임별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주경 스님은 "간선위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잡음을 줄이고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19대 중앙종회의 안정적 구성을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을 자동품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선광 스님은 "대종사·명사 자격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세납을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대종사·명사 법계를 받는 스님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법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일감·보륜·법주 스님 당선


일감 스님


보륜 스님


법주 스님

직능선출위, 10월 15일 선출
보륜 스님은 단독후보 무투표
법주 스님, 128명 중 69표 얻어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직능직(선원) 대표에 일감 스님, 직지사 보륜 스님, 백양사 법주 스님이 각각 당선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0월 15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일감 스님을 선출했다.

성웅 스님의 총무부장 임명으로 치러진 이번 직능직 보궐선거에는 성화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 현민 스님(서울 호압사 주지), 일감 스님이 입후보했으나 성화 스님과 현민 스님이 각각 10월 2일과 14일 후보직을 사퇴해 단독후보로 치러졌다.

일감 스님은 원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사미계를, 199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과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미래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제8교구본사 직지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보륜 스님이 당선됐다. 제8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치러진 제18대 중앙종회의원 8교구 보궐선거에서 보륜 스님이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묘장 스님의 총무원 기획실장에 임명으로 치러지게 됐다.

보륜 스님은 법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고방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직지사 부주지, 더프라미스 이사를 맡고 있다.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기호 1번 법주 스님(완도 신흥사 주지)이 당선됐다. 법주 스님은 10월 16일 백양사에서 열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자 128명 중 69표를 얻어 당선됐다. 기호 2번 법공 스님(광주 문빈정사 주지)은 59표를 얻었다. 만당 스님(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의 입적으로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에는 법주 스님과 법공 스님, 성진 스님(양주 성관사 주지)이 입후보했다. 이후 성진 스님이 후보 사퇴해 양자대결로 치러졌다.

법주 스님은 지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7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2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재무국장을 지내고 현재 완도 신흥사 주지를 맡고 있다.

여수령 기자 · 김내영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사면·경감·복권 시행

10월 28일까지 호법부로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화합승가' 실현을 위해 사면·경감·복권 절차를 시행한다. 2018년 3월 21일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공포 이래 처음이다.

조계종은 10월 2일 공고를 통해 "2569(2025)년 사면·경감·복권을 종정 성파 대종사에게 상신하고자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는 10월 28일까지이며 사면·경감·복권 신청서, 수징기간 수행이력서(증명서류 포함), 참회서, 제적의 수징자의 경우 승적업무에관한령 제3조 1항에 따른 서류 일체를 준비해 총무원 호법부(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로 제출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국가지정 명승 | 호리병속의 별천지 쌍계사, 우리들의 이상향 청학동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총림 雙磎寺

쌍계사개산 1302년 · 차나무식재 1197년 · 창건 1185년 기념 대축전

10월 27일~11월 2일(음력 9월 7일~13일) 7일간 법회 및 행사 일정

지혜증장·학업성취·소원성취 발원

대방광불화엄경 고산화상약찬가 독송기도

■ 일시 : 10월 27일~11월 2일(음력 9월7일~13일)까지 7일간
■ 장소 : 화엄전 | 오전 9시

화엄경 약찬가는 고산대강백께서 80권 화엄경을 노래 형식으로 요약하시고 '화엄경 약찬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엄경약찬가를 독송하면 80권 화엄경을 다 읽으신 것과 같습니다. 정성껏 독송하시고 지혜증장과 학업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일해덕민 대강백의 초의선사 동다송 특강

■ 일시 : 양력 10월 30일~11월 1일(음력 9월10일~12일)까지 3일간
■ 장소 : 문화예술관 대강당 | 오후 2시

차나무식재 1197주년 기념 세미나

주제 : 우리나라 차나무의 품종과 수령은?
■ 일시 : 양력 11월 1일(음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문화예술관 대강당

쌍계사는 828년 대렴공이 당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면서 차나무종자를 가지고와 왕명으로 쌍계사일대에 처음으로 식재 했다. 그후 840년에는 육조혜능조사의 현손인 진감혜소선사가 삼법대비의 난야터에 육조영당을 짓고 옥천사(쌍계사의 옛이름)를 창건하시고 화개골 일대에 차나무를 번식시켜 차의 발상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화개골 전체가 1,200년된 차나무 밭이라 할 수 있다. 1,200년 동안 수많은 문인 묵객들이 다녀가면서 많은 선차시를 발표하였고, 쌍계사 청학동을 다녀가면서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칭송하였다. 이에 쌍계사에서는 일해덕민 대강백을 초청하여 초의선사 동다송 특강을 통해서 차의 진수를 공부하고, 쌍계사와 차의 변천사를 공부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많은 외침을 받았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심하게 하였다. 특히 식민사관植民史觀자들에 의해서 더욱 심했는데 화개골도 마찬가지다, 차나무 시배지 토종차나무를 뽑아내고 일본 종자를 심고 일본차 공장을 세워 일본차를 생산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과연 우리나라의 차나무는 어떤 종자이고 수령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천년된 차나무라고 왜곡시키고 있는 자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제40회 쌍계사 본 말사 연합회 자비 방생 대법회

■ 일시 : 양력 11월 2일(음력 9월 13일) 일요일 오전 9시
1부 방생의식 / 2부 법요식 및 방생



문의 : 쌍계사 종무소 055-883-1901

쌍계사 본 말사 연합회 일동